

名前:

최근에 이르러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, 신문이나 잡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.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, 물론 신문이나 잡지를 사서 그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냐라는 이야기다.

인터넷의 경우,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며, 컴퓨터나 핸드폰이 있다면 누구나 잠재적으로 인터넷상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. 하지만 그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, 전문성은 낮다.

한편 신문이나 잡지는 속도면에서는 인터넷보다 못할지라도, 정보로써 신뢰성이거나 전문성에서는 뛰어나다. 물론 신문과 잡지에도 틀린 정보나 전문성이 ~~떨~~ 떨어지는 것도 있으며, 반대로 인터넷의 막대한 정보 ~~중~~에는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.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이나 전문성 ~~을~~ 이유로 인터넷이 신문이나 잡지보다 좋은 한대라고 어느

정도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. 그것은 인터넷보다 신문이나 잡지는 보기가 좋으며, 노인이나 컴퓨터를 못 쓰는 사람에게서는 인터넷상의 정보보다 더 얻기 쉽기 때문이다.

그리고 또 하나,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것에 향수를 느끼기 때문이다.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를 간단히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신문이나 잡지를 손으로 넘기는 즐거움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.

앞으로 인터넷이 ~~말마다~~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서 잡지나 신문의 역할이 적어져도 그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

실용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,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.